



회화 작품, 첫선을 보이는 대규모의 청동 조각 연작들로 구성돼 있다. 달걀 모양에 가까운 형상은 그녀가 가진 여성성에 대한 형태를 적나라하고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림자가 대상만큼이나 중요한 텅 빈 조각을 만들고 싶었다”는 그녀의 말에서 이 조각들이 지닌 사유적 배경을 읽을 수 있다. 특히 내부와 외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결국 하나로 합치고 싶다는 그녀의 욕구는 사회적 규범을 지배하는 방식에 대한 강한 관심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한 작가가 펼쳐온 일련의 작업은 결국 작가와 관객, 또는 작가와 세상의 관계 맺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작가가 적극적으로 세상에 몸을 내던지고 관객 역시 작가의 작품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통이 요즘 세상의 화두가 되는 까닭은 결국 소통의 부재가 만연하는 세상, 소통을 낫설어하거나 방법을 망각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가와 관객도 마찬가지다.

(왼쪽 페이지) 김종학 회수전 <진정>, 6월 12일~7월 7일, 현대갤러리 전관  
 (오른쪽 페이지) 가다 아메르 개인전 <그녀에 대한 참조>, 5월 16일~6월 30일, 국제갤러리 3관  
 가다 아메르 사진은 Nat Gory, 작품은 'The Blue Bra Girls', 2012, 국제갤러리 제공